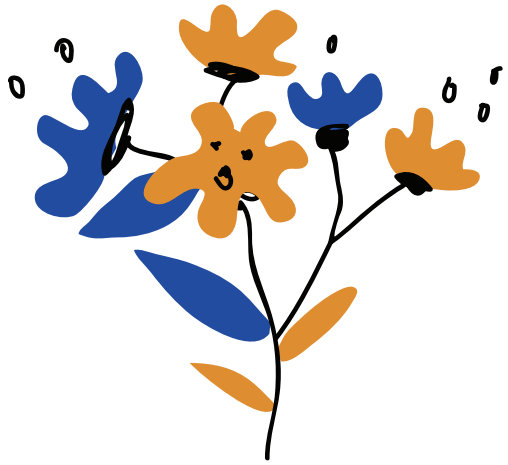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서

2015 FINAL REPORT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CONTENTS

03 인사말

04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소개

06 자유주제 지원사업
- 가톨릭여성회관
- 레주파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장애여성공감
- 충주YWCA
- 한국여성민우회
-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2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 관악여성회
-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6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 공동체
-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 평화여성의집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5년에도 한국여성재단은 변함없이 핵심고유목적사업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총 19개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3년간 여성재단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기금을 모으기 위해 매년 100인 기부릴레이라는 모금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 캠페인에 해마다 5,000명이 넘는 기부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한국 여성의 지위는 남성과 동등하거나 더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성대통령이 나올 만큼 국가, 기업, 지역 등의 주요한 위치에 이제는 남성보다 여성의 활약이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여성들의 모습에 우리사회 많은 여성들의 모습은 겹겹이 가려져 한국사회가 이제는 성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보아도 한국 여성의 사회 진출 현황은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사회 여성임원 비율은 3%도 채 되지 않고, 비정규직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여성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더 낮아졌고, 일자리의 질도 더 나빠진 것입니다.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여성을 향한 폭력의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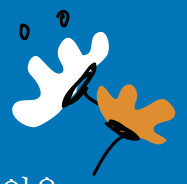
이 책자에 실린 19개의 사업은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 여성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재단이 지원한 사업들입니다.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는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이 지역여성, 청소년, 장애여성, 여성노인 등 다양한 여성의 시각에서 소수자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팟캐스트와 책자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herstroy를 만들어 나갔으며, 여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부 정책 모니터링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여성혐오 현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성폭력 판례 분석 및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자립의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통해 우리사회가 지금 바로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지난 14년간 여성재단과 여성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지지하여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많은 것들을 바꾸어 왔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여성을 비롯한 우리사회 약자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성평등은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인류역사의 명령입니다.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해 지기 위한 여성재단의 활동에 기부자님들께서도 지금과 같이 관심과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 혜 경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성을 비롯해 우리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성, 인종, 계급,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여성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핵심 사업입니다.

한 눈에 보는
2015 성평등사회조성사업

19개 단체에 총 **225,722,000원** 지원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분야 **184,722,500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분야 **9,999,500원**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분야 **31,000,000원**

★는 2015년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자유주제 지원사업

분야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
성평등 문화 정착	가톨릭여성회관	비문해여성들을 위한 성평등 인식 향상 프로그램 '늦깎이 여성주의자를 위한 완생(完生) 프로젝트'	11,000,000원
	레주파	도레미 프로젝트 (도시에 뜬 레인보우미디어 프로젝트)	9,500,000원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청소년인권운동과 여성주의 인문학의 만남 "그렇고 그런 사이"	6,000,000원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16,000,000원
	충주YWCA	한반도 중심고을의 성평등 문화만들기	8,000,000원
	한국여성민우회	〈멋진 할머니 되기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머니 걱정 없는 노년을 상상하다	18,000,000원
여성 노동권 향상 및 empowerment	★ 마산창원 여성노동자회	언니들에게 듣는다! (부제: 여성노동자, 살아있는 역사들)	18,000,000원
	★ 한국여성노동자회	Volume up! '을'들의 당나귀 귀	20,283,000원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분야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
성평등 정책 만들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평등세상을 꿈꾸는 풀뿌리여성학교 "참여로 일구는 여성생활정치"	6,000,000원
	성인지예산전국 네트워크	젠더브릿지 역할을 통한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강화	20,000,000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6 총선을 맞이하는 여성정치 platform 만들기	12,939,500원
평화사회 구축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여성, 광복70년 · 분단70년을 말하다 : 세대를 넘어 분단체제의 여성을 만나다	14,000,000원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글로벌여성행동네트워크	25,000,000원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
여성운동 활성화	관악여성회	여성들의 성평등의식 UP 프로그램	5,000,000원
	인천한부모 가족지원센터	한가족이 되기 위한 한걸음	4,999,500원

분야	단체명	사업명	지원금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인권 증진	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 공동체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족소통프로그램	8,000,000원
	의왕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도담도담, 울타리가 되어 줄께!" 아동 및 장애 청소년의건강한 성의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8,000,000원
	평화여성의집	"비상!" 탐라에서 나를 찾다	5,000,000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	10,000,000원

여성에게 '여자(?)답게'를 강요하는 사회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적이며,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

· 롯데주류 처음처럼 광고, 여성을 남성의 지갑을 비우는 존재로 묘사
· 코오롱스포츠 오지탐사대 모집 광고, 여성을 남성에게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
·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예방 캠페인, 피임은 여성 혼자 책임지고 다른 건 모두 남성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묘사

※ 출처. 노컷뉴스 2015.08.20 / 더팩트 2015.09.22

여성에게 모성과 가족에 대한 희생을 강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여자는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야 하고 아이도 잘 키우는 존재이기를 강요
그러면서도 나이든 여성은 '아줌마'로 묘사하면서 억척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르며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한 존재로 비하

'여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와 잘못된 사회적 고정관념을 강요하는 우리사회

그래서, 한국여성재단은!

한국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문해여성들을 위한 성평등 인식 향상 프로그램(가톨릭여성회관)〉, 〈도레미 프로젝트(레주파)〉, 〈청소년인권운동과 여성주의 인문학의 만남(여성문화이론연구소)〉,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장애여성공감)〉, 〈한반도 중심고을의 성평등 문화만들기(충주YWCA)〉, 〈멋진 할머니 되기 프로젝트(한국여성민우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비문해여성들을 위한 성평등 인식 향상 프로그램

늦깎이 여성주의자를 위한 완생(完生) 프로젝트
가톨릭여성회관

2016, 여성 비문해율 10.1%, 남성 2.6% 보다 5배 높다

· 비문해여성을 위한 성평등 교재 발간 및 배포
· 비문해여성을 위한 성평등 교육 진행(35명 모집, 주 1회, 총 32회 진행)
· 비문해여성 캠페인실천단 구성 및 캠페인 진행(10명 참여, 월 1회, 총 5회 진행)
· 연극동아리 구성 및 활동(10명 참여, 주 1회 진행, 연극발표회 1회 개최)
· 성평등 토크콘서트 개최(1회)

내 삶에 주인공으로 다시 서다

■못 배운 恨을 풀자
· 교육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성차별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비문해여성들의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눈높이 교재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비문해여성 스스로의 의식 변화 및 가족들의 인식 전환으로까지 영향력 확대

■내 살아생전 처음 성평등을 접했다
· 어렵기만 한 '성평등', '여성주의'를 다양한 문화적 · 실천적 활동으로 접근

– 처음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다
: 비문해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시민들에게 '성평등'을 알리는 과정에 직접 참여

–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서다
: 매주 진행된 연극 연습, 두차례의 연극 공연을 통해 비문해여성들의 자존감 향상
: 지역 내 정기적 공연 개최 예정

– 처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다 〈토크콘서트〉 **냉**해진 가슴에 **장**맛처럼 깊고 **고**소한 이야기를 **부탁해!**
: 비문해여성의 성차별적 경험을 토크로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여성주의적 인식 향상 및 자신감 향상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379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문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 전환 및 여성주의 실천 활동을 만들어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많은 질문과 과제가 남기도 했다. 당사자들은 원하는가? 행복한가? 파급력은 과연? 많은 질문들 속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중요한 명제는 참여하는 모든 여성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싶었다. 바로 지금 당장의 변화는 아닐지라도 그 변화의 시작이었으면 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온 비문해여성들에게 작은 숨구멍이라도 되었으면 싶었다. 이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 최강희 가톨릭여성회관 활동가

도레미 프로젝트

도시에 뜬 레인보우 미디어 프로젝트

레주파

다양한 성정체성을 말할 용기!

■ LEZPA 레주파, 어디까지 아니?

· 레즈비언 + 주파수 = 레주파

· 미디어에서 소외된 레즈비언의 목소리를 담은 신나는 방송을 만드는 레즈비언 라디오 방송 제작팀으로, 2005년부터 〈L양장점〉을 제작, 방송하고 있음.

· 도레미 오픈토크 진행(10회, 매회 약 20명 참여)
· 도레미 네트워크 파티 개최(1회, 120명 참여)
· 도레미 컨퍼런스 협력공동체 모임 운영 (8회, 매회 약 6명 참여)
· 도레미 컨퍼런스 개최(1회, 80명 참여)

온라인 + 오프라인 = 우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다

■ 라디오를 넘어 미디어 문화 공동체로 성큼!

[오픈토크] 미디어 활동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 레주파 활동가, 여/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레즈비언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여/성소수자 미디어 이슈에 관심이 있는 개인/공동체 등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 문화, 예술, 삶, 인권 등 다양한 여/성소수자 이슈로 오픈토크 정기 진행(월 1회, 총 6회)
· 여/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에 대한 사회적 시각 분석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디어/문화활동 모색

[컨퍼런스] 영상 · 사진 ·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로 여/성소수자 이슈를 다루는 성인지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 개발

· 대중 미디어가 그리는 여/성소수자의 재현이 담고 있는 사회적 편견 분석
· 당사자가 직접 만드는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여/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
· 당사자들이 미디어 수용자에서 주체로 성장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328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레주파의 2015년은 새로운 도전의 해였다. 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오던 미디어 콘텐츠 제작 혹은 전시가 아닌, 여/성소수자들의 오프라인 네트워크 장을 만드는 사업 〈도레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시작이 어렵지 한 번 해보았더니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올해 사업을 기반으로 오픈토크, 미디어컨퍼런스 등을 레주파의 지속사업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 우야 레주파 공동대표

청소년인권운동과 여성주의 인문학의 만남

그렇고 그런 사이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페미니즘 강좌는 안하나요?

■ 우린 왜! 만나야 하는가

· 청소년에게 '미성년자'라는 이름을 붙어, '보호'와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청소년 인권의 한계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하고자 함. (여성주의와 청소년 인권운동이 연대학교 교류할 수 있는 장 마련)

· 청소년 인권운동과 여성주의의 연대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2회, 50명 참여)
· 청소년인권활동가를 위한 여성주의 인문학 강좌 개최(6회, 매회 15명 참여)
· 청소년인권활동가를 위한 여성주의 인문학 세미나 자료집 제작 및 배포(200부)

청소년의 언어로 청소년페미니즘을 만들자

■ 〈간담회〉 서로를 이해하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청소년 인권운동 영역에서 마주하는 여성주의적 사안 공유
· 청소년인권활동가 여성주의 연대를 위한 방안 모색

■ 〈여성주의 강좌〉 여성주의를 배우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들에게 여성주의 이론과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청소년 인권운동과 여성주의 상호 이해 기회 제공
· 보호/양육의 틀에 갇힌 청소년 의제 확대

■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을 위한 여성주의 인문학 자료집 발간 〈여성주의 세미나를 위한 안내서〉

·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여성주의에 대하여 쉽게 접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제작하여 청소년인권 단체에 배포
· 여성운동의 확대 및 차세대 여성운동가 육성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207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뭐든 처음에는 다 '그렇고 그런 사이'이지 않을까. 여성주의와 청소년인권 간의 접점은 청소년인권과 여성주의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어느 하나가 답을 제공해주어야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강좌가 그렇고 그런 사이들을 조금 이어주는 단초로서 작용했으면 한다. 여성주의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청소년인권활동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말을 얻게 된 것이기를. 그리고 여성주의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가, 청소년 주체들이 늘어나 자연스레 청소년인권과 여성주의는 '그렇고 그런 사이'를 넘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수수 '그렇고 그런 사이' 기획단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선택권? 생명권?

· 포럼 기획단 구성 및 운영(7명, 6회 진행)
· 장애여성 재생산권 연속포럼 진행(4회, 매회 15명 참여)
· 종합포럼 개최(1회, 36명 참여)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 재생산권은 어떤 권리인가?

· 성적 건강 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여성이 자유롭게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통제할 권리
·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에는 완전한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안녕 상태에 도달할 권리,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권리, 재생산 여부, 시기, 빈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함

■ 다양한 운동영역별 연속포럼 진행

· 건강, 의료, 법률, 여성/시민단체 등 분야별 단체가 결합한 기획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장애여성 '재생산권'을 다각도에서 바라보는 논의 진행
· 여성운동계와 장애여성자조모임 및 장애여성활동가,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친 연속포럼을 진행함으로써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확산할 수 있는 토론의 장 마련
· 비장애/이성애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재생산담론에 장애여성의 경험 반영

■ 연속포럼의 결과를 총화하는 종합포럼 개최를 통해 재생산권 담론 확산

· 재생산권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운동과 장애인운동의 문제의식을 교류
· 선택권, 생명권이 아닌 '인권'으로서의 재생산권리 제기
· 언론보도 – [허핑턴포스트] 장애여성이 재생산권리를 쟁취한다는 것
[비마이너] '건강한 국민' 생산 요구에 맞서, 장애여성 재생산권을!
[복지TV] 장애 · 여성 재생산권 논의 포럼 개최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552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임신중지 사건은 여성으로서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다. 한편으론, 일상적이지만 그만큼 쉽게 논의되기 어려웠고 여성들 사이에서 개인의 아픈 서사로 서술되고 있었다.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단체만이 아니라 활동가 개인으로서 고민을 심화시킬 수 있었고, 인구재생산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서 재생산권이 단순히 여성의 결정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형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박서연 장애여성공감 연구정책팀 활동가

한반도 중심고을의 성평등 문화만들기

충주YWCA

충주시민들의 지역 최초 성평등 인식조사 진행

·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교육 진행
(7회, 매회 약 25명 참여)
· 모니터단 모집 및 설문조사 진행(14명 모니터단 활동, 충주시민 770명 설문 참여)
· 토론회 개최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1회, 60명 참여)

충주는 성평등한 도시입니까?

■ 충주시민 성차인식 조사

· 가정생활 영역, 직장생활 영역, 남녀관계 영역에서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에 따른 성차인식 조사 진행

■ 충주시민의 성평등 실태 인식 조사

· 주변에서 성차별적 현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
– 자주 또는 가끔 보았다 남성 30.7% 〈 여성 40.5%
· 충주시의 여성 정치 리더의 비율이 부족한편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 남성 45.2% 〈 여성 59.7%
· 충주시가 여성들이 일하기에 좋은 경제활동 여건을 가지고 있는가?
– 그렇지 않다 남성 47.8% 〈 여성 62.1%
· 충주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 남성 22.1% 〈 여성 34.1%
· 충주시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남성 32.1% 〈 여성 39.9%

■ 충주시민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욕구 조사 결과

· 1순위 남녀의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의 강화
· 2순위 소외계층들을 위한 경제적 · 사회적 지원 확대
· 3순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와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276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평등문화, 성평등인식. YWCA를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된 단어들이다. 아니, 들었어도 그냥 무심히 넘겨버렸다. 여자이면서도 그러려니 혹은 그런 것이지로 무감각하게, 극히 당연한 것으로 일관했었다. 그러나 20시간의 짧은 교육이 나를 눈뜨게 했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으며 노력도 하게 했다. 교육을 마치고 설문조사를 직접 진행할 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우친 뿌듯함으로 당당하게 설문지를 내밀 수 있었다.

– 모니터단 모니터링활동 후기 중

멋진 할머니 되기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머니 걱정 없는 노년을 상상하다
한국여성민우회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나요?

· 한부모, 비혼, 전업주부, 맞벌이, 비정규직 등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4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노후불안 심층 인터뷰 진행(13명 참여)
· 대안적 노후 담론을 소개하는 대중강좌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나요?〉 진행(총 6회, 130명 참여)
· 우리가 상상하는 노후대안 만들기 워크숍 〈질풍老도 : 노년, 새로운 바람이 분다〉 진행(총 7회, 52명 참여)
· 노후대안 소책자 〈노년상상 다이어리〉 제작 및 배포(1,000부)
· 노년문화제 〈노년상상파티〉 개최(1회, 70명 참여)

늙음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사회, 우리는 어떻게 나이들어 가야 할까요?

■ 오래 살까봐 걱정?
· 성인남녀 1,000명 중 61%가 노후 생활이 염려된다고 응답
노후 불안을 느낀다 남성 54.2% 〈 여성 67.8%
· 노후 생활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경제력(66.1%)과 건강(64.6%) (2014 노후생활 및 기대수명 관련 인식조사)

■ '괜찮은' 노년을 위해서 필요한 건 정말 돈 뿐일까?
· 〈기초조사 인터뷰〉를 통해 여성들의 겪고 있는 노후불안 키워드 도출 : 건강, 경제, 몸 언급
· 〈여성의 노후에 대한 대중강좌〉를 통해 여성커뮤니티에 기반한 대안적 노후 담론 도출
· 〈여성들의 노후대안 만들기 워크숍〉을 통해 가족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복지제도의 새로운 지향 도출
· 소책자 발간, 노년문화제 개최를 통해 대안적 노후 담론을 사회적으로 확산

■ 2015 노년고민백서 15개의 키워드
· 친구/시간/무계획 · 무걱정/짐/돌봄/엄마/연애/남편/가족/요리/공부/종교/여행/일/죽음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621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에게 노년은? 노년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들어 늙은 때, 또는 늙은 나이"다. 하지만 노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조금 다르게 노년을 정의해본다. 나이듦이 공포와 불안이 아닌 열림과 새로움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상상해본다. 가능하단 희망을 놓지 않고!

– 노년상상다이어리 중

남녀 경제평등 이루려면 118년을 기다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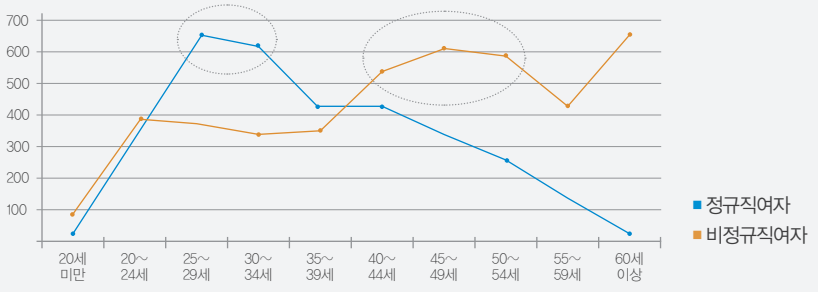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10년째 50% 안팎

2015년 기준 여성 51.8% 〈 남성 73.8%

연도	2006	2007	2008	2013	2014	2015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0.3%	20.2%	50.0%	50.2%	51.3%	51.8%

여성의 일 = 비정규직?

남성의 경우 정규직이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음
· 정규직 여성 44.7% 〈 남성 63.6%
· 비정규직 여성 55.3% 〉 남성 36.4%
또한 20~30대의 정규직은 계속 감소하고, 경력단절 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



거기다 임금격차까지, 남녀간 임금 격차 100 대 36

남성이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겨우 63만3000원 밖에 받지 못함
여성 비정규직 한달 평균 임금은 121만원으로 최저임금 126만270원보다 낮은 금액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달자도 148만 명에 달함

※ 출처 : 머니투데이 2015.11.19 / 여성신문 2016.03.03.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14)

그래서, 한국여성재단은!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알리고 남녀의 경제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언니들에게 듣는다(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Volume up! '을'들의 당나귀 귀(한국여성노동자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언니들에게 듣는다!

여성노동자, 살아있는 역사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본 사업은 2015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숨겨진 여성의 삶을 기록하다

· 기획팀 구성 및 기획회의 진행(총 13회)
· '언니들에게 듣는다' 인터뷰 진행(총 12명)
· '언니들에게 듣는다' 발간
  : 초록본 구술집(50권), 편집본(200권)
· '언니들에게 듣는다' 북콘서트 진행(1회, 112명 참여)
· 영상기록 : 인터뷰 트레일러 영상, 메이킹영상, 다큐 제작

언니들의 기억이 구술이 되고 구술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역사가 되다

■ 기록되지 않는 건 역사가 될 수 없다

·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여성노동자이자 여성노동운동가로 일했던 1970~1980대 여성노동자의 삶과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구술
· 대표적인 노동운동 지역인 마산, 창원 지역의 노동운동사에 여성의 역할 부각

"제가 유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여성노동자들도 다 유산이 되면서 회사를 떠났어요... 제가 1999년도 임신을 했는데, 본드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난 임신했다, 본드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한거예요. 이렇게 허구한 날 싸웠어요." – 언니들에게 듣는다에 기술된 인터뷰 중 일부

■ 문자 기록(구술집 발간)과 영상 기록(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숨겨진 여성노동의 이야기를 드러내다

· 경남 도민일보 월간지 '피플파워' 연재 3회
· 경남 도민일보 인터뷰 기사화 4회
· 헬로티비 경남방송 '80년대 여성노동자 재조명' 방송
· CJ헬로비전 라디오스타 경남FM '오리지널 마산언니 이연실' 방송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621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잘 살았다."
"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었어."
"훌륭하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니 역할을 하면서 그런대로 잘 살고 있네."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멋진 일은 노동조합 활동했던거라예."
이 언니들은 분명 여성노동자 역사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고 있는 주역들이다. 그때 수출자유지역을 가득 채우던 그 언니들은 지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가정주부로 각자의 위치에서 또 그때처럼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 '언니들에게 듣는다' 책 소개 중

Volume Up! '을'들의 당나귀 귀

한국여성노동자회

* 본 사업은 2015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하는 이야기, 오늘을 사는 평범한 모든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

· 팟캐스트 기획팀 구성 및 기획회의 진행(총 18회)
· 팟캐스트 녹음(총 15회) 및 업로드(총 22회)
· 팟캐스트 공개방송 〈공감해! 위로해! 응원해!〉 진행(1회)

우리가 우리 얘기를 직접 해보자

■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시작하자, 여성노동 전문 팟캐스트 최초 제작

· 〈'을'들의 당나귀 귀〉 http://www.podbbang.com/ch/9548
· 여성노동을 이야기하는 여성노동 독립언론으로 성장
· 29명의 출연진, 22회 업로드, 4,044회 다운로드(스트리밍), 366회 좋아요

■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드러내다

· 레이테크코리아, KTX 여승무원, 김경숙상 수상자 등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직접 출연하여 다양한 여성노동이슈를 다룸

· 오늘, 메주와 상중의 노마드
·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의 삶
· 일은 인생의 꽃! 남녀노소 꽃피워 우리 함께 살자
· 월 이백만원은 여성노동자들의 넘사벽인가?
·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호들갑떤 당신들,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시라
· 임신한 여성은 불량품인가?
· 유리천장에 닿기 전 유리벽에 막혀있다
· 우리는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
·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를 만나다
·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
· 여성노동포럼
  –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되었다
  – 남녀임금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 일자리 정책이 숨겨온 불편한 진실
  – 오래된 질문, 다시 기본으로
  – 아무도 배재되지 않는 돌봄사회 어떻게 가능한가?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700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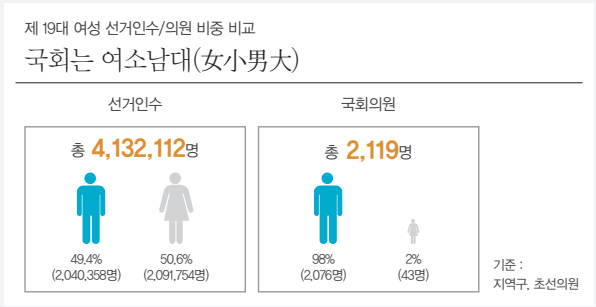
방송을 꼬박꼬박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나 혼자 고통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방송을 들으며 나의 이야기가 나만의 것이 아니고 이런 힘든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방송을 계속해주세요.

– 대구에 사는 청취자 소감 중

한국 성평등지수 세계 142개국 중 117위 믿어지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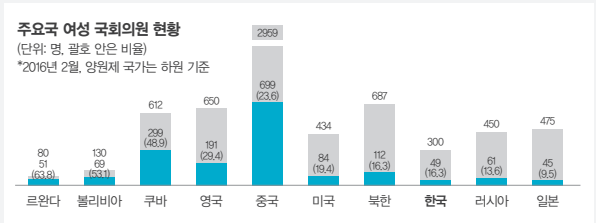
국민의 50%는 여성, 그러나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단 2%

역대(1~19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2,119명 중 여성은 모두 43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



우리나라 국회 여성의원 비율 '북한과 동급'

국제의원연맹(IPU)이 세계 191개국 의회의 여성 국회의원 숫자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북한과 함께 16.3%로 111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49%에 달하나,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겨우 4.5%
5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은 겨우 2.3%
여성의 정치적 권한 부문은 오히려 급락, 2012년 86위 → 2015년 101위

※ 출처. 세계일보 2016.03.06. / SBS뉴스 2016.03.10. / 뉴시스 2015.07.01.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03.08

그래서, 한국여성재단은!

정치, 경제, 의사결정,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을 대표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성평등세상을 꿈꾸는 풀뿌리여성학교(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젠더브릿지 역할을 통한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강화(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2016 총선을 맞이하는 여성정치 platform 만들기(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를 지원하였습니다.

참여로 일구는 여성생활정치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평등세상을 꿈꾸는 풀뿌리여성학교

주민들이 지역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풀뿌리참여단〉이란?
· 여성들이 나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건강한 변화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 이를 통해 여성들이 지역 생활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지하는 모임

■〈풀뿌리참여단〉은 이런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 사람
·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

■〈풀뿌리참여단〉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 〈풀뿌리여성학교〉 참여자 모집(15명) 및 강연 진행(8강)
· 〈풀뿌리참여단〉 구성(10명) 및 모니터링 활동(6회) 진행
· 지역여성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집담회 개최(8회)
· 행정과의 간담회 & 지역여성정치인과 수다회 개최(1회)

생활정치, 다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것

■지역 내 정치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민주적 풀뿌리 정치를 확장하다!
· 우리 지역 주요 현안 발굴
  – 20~30대 여성들의 주요 관심사 : 보육시설문제
  – 40~50대 여성들의 주요 관심사 : 노후문제
·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의회 방청, 집담회 개최
  – 보육시설과 노인요양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 집담회를 통한 지역여성들의 욕구 및 의견 수렴

*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제안, 구의원들에게는 주민과의 소통의 중요성 확인,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 살림살이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자극제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207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가 그리는 2015년의 포부는 남달랐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 특히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생활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해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지역을 돌아다니며 모집 전단지를 부착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발족된 15명 남짓의 참여단. 이들을 데리고 지역 내 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를 모니터링하고 며칠을 만나서 보고서 쓰는 법, 인터뷰 하는 법,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한 해설과 공부... 돌아보니 참 열심히도 살았다. 그러한 노력이 10월, 행정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그마한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함이 느껴진다.

– 김수경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생활정치를건강하게팀 팀장

젠더브릿지 역할을 통한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강화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성주류화를 위한 NGO의 역할은?

· 젠더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열린강좌 개최(4회, 105명 참여)
· 17개 광역시도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TFT 운영 및 결과 발표(8회, 70명 참여)
· 성인지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포럼 개최(4회, 168명 참여)
· 지방의원 대상으로 젠더뉴스 발송(월 1회)
· 지방의회 성인지예산심의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600부)

NGO–정부–연구자–의회를 연결하는 젠더브릿지

■ 지자체 젠더이슈 가시화

· 서울,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광주, 강원, 대구, 전북, 제주 11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젠더전문가들의 릴레이 TFT 진행
·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을 통한 주요 젠더이슈 사례 발표
  – 5개 지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경북과 부산이 제일 많았으나, 불필요한 사업이나 불가능한 사업이 다수 포함. 15개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2014년도 총 과제수는 전체 1,213개였고, 그 중 194개 과제가 작성내용이 없는 사례로, 약 15%를 차지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평등 개선조치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15개 지역의 분석평가서 10개 과제 중 4개 과제는 '팥소 없는 찐빵(속 빈 강정)'으로 조사됨. 가장 성실하게 정책개선 조치를 제시한 곳은 경기도였으며, 개선조치가 절반 가까이 없는 지역은 부산과 강원도. 그럼에도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보고서의 분석 내용이 우수하고 바람직한 개선안을 기대하며 발굴한 사례가 81개 사업으로 조사

■ 지방의회 성인지예산 심의활동 지지

· 지방의회 위원 2,642명에게 월 1회 젠더이슈 브리핑 발송(웹진 및 문자)
· 연간 활동경험을 종합한 지역별 젠더거버넌스 포럼(서울, 아산, 대전, 전남) 개최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690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 한해는 강원부터 제주까지 전국을 다니며, 여성들을 만나고 성인지정책을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들의 연속이었다. 지역에 구슬은 많지만 누군가가 성인지관점으로 꿰는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인 것 같다. 각각의 단위들이 내용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계속 말하고 전하고 나누고 소통하는 역할로 동분서주한 올 한해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인지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더 많은 여성을 만나면서 대중적 언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 임원정규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2016 총선을 맞이하는 여성정치 platform 만들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 여성정치 플랫폼 기초다지기 토론회 (2회 진행, 총 45명 참여)
· 여성정치 플랫폼 공론장 열기 집담회 (전국 4개 지역, 4회 진행, 총 70명 참여)
· 여성정치 플랫폼 전망대회(1회 진행, 40명 참여)

여성정치,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대표할 것인가

■ 여성운동 속에 여성정치의 '현재'를 확인하다

· 지난 15년간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을 정치학자, 여성학자, 정당 당직자, 단체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배경과 이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평가하는 자리 마련

■ 여성정치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다

· 부산, 경남, 인천, 고양/파주 각 지역별 여성운동 단체의 중견활동가 중심 지역 순회 〈여성정치 집담회〉 개최
  – 여성에게 정치란?
  – 정치의 중요성을 느낄 때는 언제?
  – 여성운동에게 여성정치세력화 및 정치개혁의 과제가 주어지는 것은?
  – 가장 중요한 지역의 정치적 현안은?
  – 누가 정치를 해야 하는가? 내가 정치인이라면?
· 지역별로 상이한 여성의제 및 여성 정치 현황을 확인하고 각 지역별, 거점별, 전국단위의 2016년 총선 대비 여성주의 전략의 틀 마련

■ 2016년 총선을 준비하다

· 2016년 총선을 대비하여 여성주의 정치 전략을 함께 도모하는 기반 마련
· 성평등 의제 및 여성 대표성을 포함하는 여성정치의 공동 의제 도출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446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차례의 지역별 간담회를 거치면서 지역의 단체장과 의원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졌느냐와, 지역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방식이 각 지역의 정치와 경제/사회 발전과 매우 큰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 여성단체들이 끊임없이 지역의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며 의견을 내는 일이 지역의 성평등 조성과 여성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우칠 수 있었다. 모든 사업 결과물들을 엮어 하나의 기록 영상과 자료집으로 정리한 지금, 내년 총선을 맞이하는 여성정치 플랫폼을 조금은 완성했다는 느낌이 든다.

– 오경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

아직도 전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콩코, 우간다,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콜림비아, 시리아 등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무력분쟁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

NEWSIS 2016.01.20.

UN보고서 "이라크 내전으로 민간인 2년간 1만9천여명 숨져"

쿠키뉴스 2016.01.20.

국경없는의사회 "시리아 민간인 사망, 3명중 1명은 여성과 아동"

전쟁의 무기처럼 사용되고 있는 '여성'

르완다 대학살, 3개월 만에 10만~25만 명의 여성들이 강간을 당함.
보스니아 전쟁, 수천명의 여성들이 '강간 캠프'에 갇혀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함.
제2차 콩고 전쟁, 내전이 격화한 2006~2007년 시간당 48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함.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2015.08.14.

IS, 이교도 여성 대상 대규모 성노예 조직 운영

"IS가 어린 소녀들을 성노예화하는 방식을 통해 대규모로 집단 강간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이들을 IS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은 고통

전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여성들은 가난에 시달리거나 성매매에 내몰리고, 난민촌에 사는 여성들은 늘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폭행 피해자인 여성들은 보호받기는커녕 가족과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버림받음.

그래서, 한국여성재단은!

남성 중심의 군사주의와 폭력을 방지하고 '국가'와 '남성'이 만든 history가 아닌 인간과 평화를 가장 최우선의 원칙으로 두고 있는 평화사회 및 herstory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성, 광복 70년 · 분단70년을 말하다(평화를만드는여성회)〉, 〈글로벌여성행동네트워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대를 넘어
분단체체의 여성을 만나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말하다

여성의 목소리 듣기! 기록하기

· 70~80년대 여성의 삶을 들려줄 인터뷰이 발굴
: 미군 기지촌 여성(2명),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피해여성(9명), 여성노동자(2명), 월남민 여성(2명)
· 인터뷰이 사전 인터뷰 진행(총 13회 진행)
· 라운드테이블 진행(총 4회, 50명 참여)
· 영상기록(CD제작) 및 자료집 발간(100부)

광복과 전쟁, 분단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지 않은 여성의 목소리를 찾다

■ **1차 라운드테이블(6월)** 미군 기지촌 여성의 목소리 "기지촌 피해자들의 삶은 70년째 진행형"

> 이 외국인들 상대하는 사람들이 참 그 피해를 많이 봐... 그래서 색시들 참 많이 죽었어. 목 눌러 죽이고 두드려 패서 죽이고, 우리 죽으면 신문에도 안 나. 라디오에도 텔레비전에도 안 나고...

■ **2차 라운드테이블(7월)** 한국 전쟁기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생존여성의 목소리
"졸지에 혼자가 된 여성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 민간이 집단학살 피해자 중 한 명은 총상을 입어 왼쪽 뺨에 물이 질질 흐르고 입이 안 벌어졌으며, 그 충격으로 현재도 항상 오른쪽 머리가 멍하고,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을 겪고 있다.

■ **3차 라운드테이블(9월)** 70~80년 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 "가난 속에서 '공순이'의 길을 걷다"

> 여성노동자들은 각성제를 먹어 가며 하루 12-15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으며, 이들은 "마치 돼지가 자기 몸을 주기 위해 살찌우는 것과 같이 밥을 먹고, 일하기 위해 잠을 잤다"는 자조 섞인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 **4차 라운드테이블(10월)** 월남민 여성의 목소리 "평화가 와야 이산의 아픔도 없다"

■ **총 4차에 걸친 라운드테이블 개최, 매회 언론사 취재를 통해 대중의 접점 확대**
· 언론보도 6회(여성신문 1회, 통일뉴스 5회)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483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픈 역사, 분단의 역사로 힘들었던 우리 언니들, 나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었고 가슴 아프고 분노하기도 하는 자리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을 이제는 재치 있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그녀들을 보며 진짜 강한 순간은 '나의 말'을 할 때이고, 이제는 한반도 분단사에서 그동안 지워지고 가려졌던 여성들의 역사가 주목 받아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다.

– 류지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가

글로벌 여성행동 네트워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폭력 피해자에서 여성인권 운동가로

· 전시성폭력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소개 자료집 제작 및 배포
– 자료집 제작을 위한 소모임(13회) 진행
– 자료집(300부) 제작 및 배포
· 국제심포지엄 〈전시하 여성폭력에 도전하는 국제 여성행동〉 개최(1회, 총 130명 참여)

전쟁과 학살 성폭력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관통하는 여성인권문제를 드러내다

■ 전시성폭력문제에 대한 국내외 활동의 정보 제공

· 여성폭력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국내외 90개 단체 조사 진행
· 〈2015 분쟁지역 여성 인권보호단체 자료집〉 제작
–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 여성폭력 근절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NGO 활동 소개
– 향후 평화, 인권, 역사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세계 전시성폭력 피해 실태를 짚고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

· 전시성폭력 피해자 증언 : 콩코민주공화국 내전 피해자
· 세계 전시성폭력의 현주소 : 콩고민주공화국, 필리핀 각국 활동사례 보고
· 전시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와 결의이행

■ 전시성폭력문제에 대해 세계여성들이 함께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 〈글로벌여성행동네트워크〉 구성

· 무력분쟁 속에서 진행 중인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과 폭력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 확인
· 향후 세계 각지의 전시성폭력 피해자들 및 여성인권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기반으로 연대활동으로 확장 계획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862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콩고 내전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피 춘구라 바하티씨가 전시성폭력과 관련하여 자국의 활동사례를 보고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사피씨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는 희망을 전하였고, 어렵게 만난 과거와 현재의 피해자는 만나자 마자 두 손을 굳게 잡았다. 김복동 할머니가 잡아준 손에 사피씨는 연신 눈물을 흘렸다. 사피씨가 한국 방문을 결정했을 때, 사피씨의 딸은 "엄마, 엄마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걸로 엄마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라며 사피시의 한국 방문을 지지하였다고 한다. 틀림없이 사피씨는 피해자로서만 안주하지 않고 활동가로, 운동가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 김동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처장

공공선과 공동의 '여성운동'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투표를 못하는 나라가 있다고요?

· 2001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이 신분증을 갖게 됨
·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에 대한 참정권 보장 약속
·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이 처음으로 참정권 행사한 선거
여성 투표로 사상 첫 여성 정치인 탄생

성차별 용어 개선을 위한 운동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사노동, 일 · 가정양립 등 여성인권과 남녀평등을 위한 사회적 개념들과 언어들이 만들어져 비가시화 된 여성 차별의 문제를 사회 전면에 드러냄

여성신문 2015.09.10.

"옥스퍼드 영어사전, '믹스(Mx)' 채택"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남성에 대한 존칭인 '미스터(Mr)'와 여성에 대한 존칭인 '미세스(Mrs)' 또는 '미스(Ms)'에 성 중립적인 존칭을 추가했다.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운동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시민 인식'을 이끌어냄

· 1994년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 제정
·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 제정
·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내 '성희롱' 규정
·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

전 세계 1천 만개, 한국 12,252개의 NGO단체(2014년 기준, 통계청)

정부와 같은 공적 영역에 속해있지 않으면서 공공선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와 협력하거나 정부를 대신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책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래서, 한국여성재단은!

우리사회의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를 만드는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여성들의 성평등의식 UP프로그램(관악여성회)〉, 〈혼가족이 되기 위한 혼걸음(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성평등의식 UP 프로그램

관악여성회

관악구에 여성단체가 뜨다!
여성주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다!

· 성평등의식 UP 여성치유프로그램
(오전/오후반 각 4회 진행, 20명 참여)
· 성평등의식 UP 기본교육프로그램
(오전/오후반 각 4회 진행, 20명 참여)

관악 여성들과 함께 성평등한 지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관악여성회의 시작!

· 지역 내 주부독서모임으로 출발
· 여성들의 자아를 찾고 권익을 실현하며 지역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설립

■ 앞으로 관악여성회는?

· 여성 자신의 삶에 대한 성장을 목표로 여성권익활동 및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
· 주부, 학부모, 영유아엄마, 미혼 및 비혼 등 여성들의 일상적 · 생활적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여성과 함께하는 단체로 성장 모색

■ 관악구에서 여성운동이 시작되는 첫걸음 〈성평등의식 UP 프로그램〉

· 〈여성치유〉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면서 잊고 있었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자존감 키우기
· 〈기본교육〉 여성으로서 감내해왔던 것들이 과연 맞는지 성평등의 시각에서 세상을 다시보기
* 여성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지역) 내에서 가깝고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전업주부, 워킹맘 등 누구든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오전/오후 프로그램 진행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172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악여성회는 올해 지역 내 여성들의 생활적인 요구부터 파악하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하여 독서모임, 생활반찬나눔 등 일상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자치구정책 성인지모니터링활동과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년 동안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관악여성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지역 내 여성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을 더 깊게 세울 것이다.

– 박명희 관악여성회 사무국장

혼가족이 되기 위한 혼걸음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 신규회원확대 운동으로 회원 100명 확보
· 단체 상근자 인건비 지원으로 안정적 활동 지원
· 정기적인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당사자 활동가 양성
·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진행(14명 참여)

인천지역 내 '유일'한 한부모가족 지원단체로 성장했습니다

■ 앞으로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 인천여성민우회 부설기관으로써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한부모사업을 진행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만들어내고 한부모여성만이 아닌 아동 ·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함.

■ '한부모'사업이 '가족'사업으로 인식 될 때까지!

· 한부모가족들의 사회로 한발짝 내딛기 위한 자조모임 및 합창단 운영
·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한부모와 비한부모간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회원모임의 날 운영
– 상담부터 한부모지원 정보 제공, 그리고 교육사업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 한부모당사자 2명 센터 운영위원으로서 활동 참여 시작
– 한부모당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을 대상으로 센터 활동을 알림으로서 한부모운동의 필요성을 지역사회 내 알림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를 통해
약 172명의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재단에서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업을 지원했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서도 1년도 안된 신생단체를 뭘 믿고 지원해줄까 싶은 마음이었다. 긴 기다림 후 우리 센터가 선정되었다는 공고를 보는 순간은 눈물이 왈칵 했었다. 여성재단의 지원 덕분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사업도 진행할 수 있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신생단체이지만 서로가 뜻을 합쳐 온 힘과 마음을 다한다면 안 될 것은 없는 것 같다.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2016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 남혜연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여성폭력 예방
여성인권 증진

* 본 사업은 2014년 한국여성재단 SOS캠페인에 참여한 기부자님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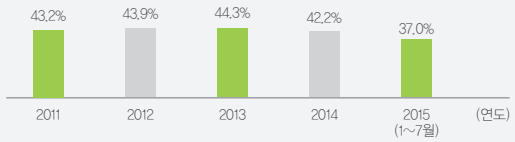
그것은 사랑도,
친밀감의 표현도 아닙니다.

성폭력 범죄, 지난 10년간 145.5% 증가

인구 10만 명 당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2005년 23.7% → 2014년 58.2%

그러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0% 전후
피해자가 어렵게 신고를 하더라도 기소율은 겨우 37.0%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



상급심만에만 가면 무죄로 판결

기소가 되더라도 명확한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 되는 경우 빈번,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이거나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간의 관계에서 있었던 개별적인 폭력행위마저도 '사랑'에 동반되는 구애행위로 보고 재판부에 의해 폭력성을 부정당함

15세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1심 징역 12년, 2심 징역 9년을 선고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피해자와 가재하의 관계가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알고지낸' 사이라 하더라도,
성폭력은 성폭력일 뿐임

※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2015) / 시사오늘 2015.09.08.

그래서, 한국여성재단은!

온라인/오프라인, 가족/연인 관계를 막라하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족소통프로그램(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 공동체)〉, 〈아동 및 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비상! 탐라에서 나를 찾다(평화여성의집)〉,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한국성폭력상담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족소통프로그램
아시아 이주여성 다문화 공동체

우리가족이 달라졌어요!

다문화가정, 안녕하신가요?

다문화가족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 명이 예상되며, 초중고 다문화학생 비중도 증가하여 5년 만에 3배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다문화가정 10명 중 7명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다문화가정 자녀 36.6%는 따돌림, 무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문화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6.4년에 불과함.

· 부부 소통을 위한 부부자조모임 구성 및 진행
(10가정 참여, 8회 진행)
· 청소년 의사소통프로그램 진행(10명 참여, 10회 진행)
· 가족 전체 워크숍 진행(43명 참여, 1회 진행)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및 정기모임 진행(8개 단체 참여, 2회 진행)

부부, 부모-자녀, 따로 또 같이 '소통'하다

■ 아내와 남편, 소통하다
· 소통 매체 : 연극 여행
· 몸, 글, 대화, 연극놀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움.
· '오해'라는 주제의 토론 연극을 통해 만들어 봄으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대안 모색의 장
– 일상에서 부부사이에 신뢰가 약해졌을 때, 대화가 부재 했을 때 바로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고, 가정폭력, 해체위기로 확대 된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는 과정

■ 다문화 청소년들끼리, 소통하다
· 소통 매체 : 라디오 미디어(* 청소년 라디오 구술 아카이브 '은하수' 협력)
· 결혼이주여성 엄마, 다문화가족, 다문화아동,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선입견을 벗어나 '라디오'로 '공적으로 말하기' 과정을 통해 가족, 또래집단,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

■ 부모와 자녀, 소통하다
· 가족 워크숍, 정기적인 가족모임을 통해 부모와 자녀들의 소통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놀이, 교육, 게임 등 다양한 소통방법으로 대화의 시간을 늘려가는 과정을 통해 가족 내 갈등을 해소

다문화가족을 모집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마치 '우리 가족이 가정폭력 대상이거나 피해자' 인처럼 받아들여 거부감을 나타내는 아버지들이 대다수였으나 자조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숙해지고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아이다마을의 핵심 참여자로 성장한 12가정 가족모임 구성원들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자체 지지그룹으로 성장한 것 뿐 아니라 아이다마을의 대소사까지 챙기고 지지하는 중요한 그룹으로 성장하여 아이다마을 인적 자원 기반이 풍부해진 것은 담당 실무자로서 가장 기쁜 일이다.

– 김안나 아이다마을 공동대표

도담도담, 울타리가 되어줄게!

아동 및 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성'에 대한 관심, '장애' 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79.4%는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으며, 청소년의 51.6%는 14~17세에 인터넷 음란물을 최초로 경험함.
청소년의 50% 이상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으며, 최초 이성교제 시기가 초등학교인 경우가 30~40%에 달함.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심과 관련 내용을 접하는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장애 청소년들은 단지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성교육이 필요없는 대상으로 여겨짐.

※ 출처. 2010 청소년성문화의식조사 / 여성신문 2013.06.20

장애 청소년의 성, '무조건' 안돼요?

- 의왕시 및 경기동남부지역 내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중고교 특수 학교 내 사업 홍보
- 교육 참여자 모집(총 12개 기관, 53명 교육 참여자 모집)
- 기관별 성교육 및 개별 성상담 진행(기관별 3회, 총 36회 진행)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 의왕시 및 경기남부지역에서 유일한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의왕장애인성폭력센터'

- 센터와 지역 내 장애인기관의 협력 아래 교육 참여자들의 사전조사를 통해 전문적인 강사가 내담자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상담 실시

■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맞춤형 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장애인 시설단체 홍보 총 371건
- 당초 7개 기관, 21명 대상자 모집을 계획하였으나, 높은 신청율로 인하여 최종 12개 기관, 53명의 교육 참여자 선정 → 당초 목표보다 252% 초과 달성
- 기관별 성교육 및 개별 성상담 진행
  - 교육 참여자들의 장애 정도 및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자료 마련
  - 강사 및 담당자들의 사전 준비회의를 통한 교육 참여자 현황 파악
  - 시각자료, 청각자료, 인형극, 역할극 등 눈높이에 맞는 수업 진행
- 사업에 참여한 시설 담당자 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상담 내용이 구체적이었다 85%
  - 상담 내용에 만족한다 90%
  - 상담 방법이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90%

본 사업을 통해 시설의 사회복지사 및 교사들의 성지식 미흡으로 인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형식적인 "안돼요"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로 장애인들의 잘못된 성인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조건적인 이유 없는 반대이다 보니 몰래 집을 빠져 나가 길거리를 방황하는 장애청소년도 있어, 성폭력 가해자로서의 범법자에 대한 낙인의 잘못된 결과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시설 관계자의 말도 있었다. 앞으로는 좀 더 상담 회기를 늘려 성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돌보는 교육으로 발전하기를 바래본다.

– 박성석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부소장

비상! 탐라에서 나를 찾다

평화여성의집

이젠 폭력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자녀 모집 (15가정 참여)
- 가정폭력피해 치유를 위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2박 3일간 진행)

문화일보 2016.02.11.

작년 '가정폭력' 검거 132% 폭증… 흔들리는 '가족 울타리' 관련 신고도 22만여건 달해, 친족이 살인범 27% 가장 많아

news1 KOREA 2016.02.24.

12년 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징역4년

문화일보 2016.01.10.

父 살해한 11살 소년…가정폭력이 낳은 '비극'

'나'에게 용기를 주다

■ 우울, 죄책감, 두려움, 분노를 벗어버리는 과정

-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의식향상 프로그램 진행
- 건강한 신체의 활성화를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진행
- 긍정적 감정수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동작치료 프로그램 진행

■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자녀의 자기 성찰과 성장의 시간

-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끌려 다닌 인생에 대한 자기 성찰
- 무기력하고 나약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는 자기 성장

시간이 무르익으며 의식에서, 생각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보며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감을 깨달으며 천칭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졌던 것을 나란히 평행하게 되돌려 놓을 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력의 실상과 남편들의 억압에 눌려 말 못하고 살아와야 했던 생활자들에게 새로운 의식의 전이와 더불어 건강해진 육신으로 사회에서 내 삶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사고의 행동과정으로 변화됨도 큰 소득이었다. 맑은 공기와 공해 없는 제주에서의 일정들은 생활자들의 표정과 얼굴에서 생기돋는 웃음과 감탄으로 그 의미를 표현하며 프로그램의 목적을 모두 함께 달성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해 주었다.

– 박지영 평화여성의집 상담원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어떤 건 유죄! 어떤 건 무죄?

· 사업 기획단 구성 및 기획회의 진행(8명, 7차 회의 진행)
· 판례를 통한 성폭력 구성요건과 쟁점 분석 좌담회 개최 (2회, 70명 참여)
· 대토론회 개최(1회, 83명 참여) 및 자료집 발송(664개 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관점으로 다시보다

■ 법조인과 성폭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성주의 판례 분석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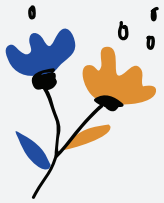
·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속에 감춰진 왜곡된 성폭력 통념 분석
〈1차〉 성폭력 성립여부 판단근거로서 위계.위력 개념을 피해자 관점에서 다시보기
〈2차〉 업무상 위력개념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보복행위)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시보기

■ 성폭력 유무죄 판단의 쟁점을 판례를 통해 분석
여성의 관점이 반영된 판결을 이뤄내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실제 사건의 대법원 판례 분석함으로써 사법기관의 편향적 태도에 대한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냄
– 아동청소년 의제 강간 사건
–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보복조치
–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 “이건 강간이야” 사건
– 소규모 사업장 대표의 마사지 종용 강제추행 사건
· 실제 수사재판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일선 판 · 검사,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인 및 법률지원자, 예비 법조인에게 자료집을 배포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젠더 관점으로 접근

피해자들은 언제나 피해를 의심 받기 때문에, 그를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랑한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사업을 통해 법원에서 더 집중해야할 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하였는지’, ‘언제 거부의사를 밝혔는지’ 보다 ‘가해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라고 입을 모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영역에서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근거해야할 것이 왜 ‘피해자의 관점’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99년 12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해왔습니다. 나아가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으로서, ‘딸들에게 희망을’ 만들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과 평등 문화 지원

이 땅의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 여성폭력 예방, 인권증진 사업
· 사회 전 분야의 여성리더 발굴, 육성 사업
· 성차별적 관행, 문화 개선 사업 등

소외계층여성 지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및 자녀의 의료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의 안정망 및 사회활동 지원
· 양육미혼모 및 자녀의 자립과 복지 향상 사업
· 다문화여성 창업 지원

돌봄공동체 구축

미래 세대와 함께 대안적 경제 · 생활 · 문화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지원
· 해외아동 교육권 향상 지원

여성 NGO와 활동가 역량강화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소셜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 여성활동가 쉼 · 재충전 지원
· 여성 NGO활동 장학사업
· 여성 이용 및 생활시설, 여성단체 공간문화개선 사업
· 여성활동가 의료비 지원

주소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E-mail womenfund@womenfund.or.kr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트위터** @womenfund **페이스북** kwomenfund